

# 幼兒의 衣服 構成을 위한 體幹部 體型分類

박 찬 미\* · 서 미 아

부천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體型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며, 어떤 특정 연령집단이 타 연령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제작시 의복생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소비자 집단의 정확한 인체계측에 의한 體型的 유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 나라 乳·兒童服 시장은 전문화, 세분화, 차별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연령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등 幼兒服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幼兒의 인체계측이나 體型파악에 관한 자료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이는 우리 나라 幼兒服 생산체제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幼兒를 대상으로 인체계측을 실시함으로써 幼兒의 體格 및 體型에 관한 정보를 수량화 하고, 이를 기초로 體型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體型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幼兒服의 적합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6세 幼兒 330명으로 1996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인체계측을 실시하였다. 계측방법은 마틴식 인체계측과 기존 평면사진계측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준점방식 투영좌표계에 의한 인체계측 방법을 병행하였다. 총 81항목을 선정하여 계측치 분석으로 幼兒의 體型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幼兒의 體型을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幼兒의 體型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키를 비롯한 높이항목을 중심으로 수직적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비하여 자세에 따른 側面體型을 나타내는 항목들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령 간에 유의한 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에 따라서는 인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의 側面體型을 나타내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體型構成要因 추출 결과 신체골격의 크기, 체간부의 굵기, 체간부의 자세에 따른 형태, 목밑 옆면 형태, 배의 돌출, 상반신의 젖힌 형태, 아랫배의 형태, 엉덩이 상부형태, 엉덩이 하부형태, 어깨경사 등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제 1요인과 제 2요인은 총 분산의 54.8%를 차지하여 幼兒의 體型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3. 體型分類를 위한 군집은 최종적으로 2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側面體型的 형태는 유형 1

과 유형 2 모두 反身體型을 나타내었다. 유형 1은 높이항목, 길이항목, 너비항목, 두께항목, 둘레항목의 치수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형 2에 비하여 작은 치수를 나타내며 어깨 및 견갑골의 발달도 미숙한 體型으로 4세와 5세를 代表하는 體型으로 볼 수 있으며, 성별로는 여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하여 신체 각 부위가 크고 잘 발달한 體型으로 주로 6세, 성별로는 남아에 많이 분포되었다.